

우리나라 교회에서 상제례 문화의 기원은 조상 제사 금지로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 창립기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대신에 교우들은 부활 신앙 안에서 죽은 이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교우들의 이 아름다운 관습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과 어우러져 신앙의 토착화와 복음 선교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죽음을 거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갑니다...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는 영육 간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교회의는 2002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1864년 목판본으로 발행된 이래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던 '천주성교예규'를 전통 상제례와 현대 감각에 맞추고 그 깊이를 더하여 한국교회의 고유한 '상장예식'으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상장예식' 펴내는 말씀> 중에서

상가방문 예절

- 문상하는 신자들은 애도의 뜻으로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하여 예의를 갖춘다.
-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다. 그리고 나서 절한 다음(또는 적당한 다른 예의를 표한 다음)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만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상 갔으면 대표 한 사람만 나가서 예를 표한다.

- 그리고 나서 신자들은 다른 문상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자리에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 모든 예식을 마치면 신자들은 시신을 향하여 성수를 뿌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적절한 예를 표하고 빈소를 물러나온다. 성수를 뿌리는 동안 신자들은 적절한 성가를 부른다.

연도 가창 요령

1. 연도는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고 말씀을 살다 가신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이며, 죽음을 묵상하는 경건한 신심행사입니다. 신앙 안에서 선열들이 지켜온 연도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2. 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 중에서 <주례자>와 <독서자>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3. 연도는 기도문(가사)에 집중하여 부르며 가락의 장단(느리고 빠름)과 강약을 맞춰야 합니다.
4. 악보에서 음표 위에 ┌──┐ 표시로 묶인 부분은 한 박자로 간주합니다.
5. 기도문의 끝은 두 박자 이상 길게, 점점 약하게 부릅니다.
6. 기도문의 시작부분은 선창자의 음폭 안에서 (약하게) 받습니다.

7. <성인호칭기도>에서 악보에  표시가 없는 곳은 느리게 부릅니다. 특히 <성->을 <서어-어영>으로, <성녀>는 <성녀-어어>로 아주 느린 두 박자로 부릅니다.

8. <성인호칭기도> 다음에 부르는 <찬미와 간구의 기도>는 처지지 않게(약간 빠르게) 부르고 맨 끝의 <주님의 기도>는 느리게 부릅니다.

9. 고인의 세례명은 두 자씩 끊어 부릅니다. 다만 세례명에 <-을(를), -이(가), -의> 등의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세례명의 끝 음절 하나를 뒤의 조사에 연결시킵니다.

2-음절세례명 : 요셉-에게 (♪ ♫ ♫ ♫)

요-셉을 (♪ ♫ ♫)

4-음절 세례명 : 안토-니오--에게 (♪ ♫ ♫ ♫ ♫)

안토-니-오를 (♪ ♫ ♫ ♫ ♫)

6-음절 세례명 : 바르-톨로-매오-에게

바르-톨로-매-오를

3-음절 세례명 : 베드-로-에게 (♪ ♫ ♫ ♫ ♫)

베드-로를 (♪ ♫ ♫ ♫)

5-음절 세례명 : 프란-체스-코-에게

프란-체스-코를

7-음절 세례명 : 단장-단장-단장-장-에게

단장-단장-단장-단을

10. (합송)-(계 혹은 응) 연결시의 장단 : 선창자의 끝 음은 2박자로 끌고 1-박자 쉬어(숨을 들이마시고) 계 혹은 응이 받습니다.

♪ ♫ ♫ ♫ ♫ ♫ ♫ (쉬) ♫ ♫ ♫ ♫ ♫ ♫

◎ 주 님을 기다 리나 이다 — ○ 깊은 구렁 속 에서

♪ ♫ ♫ ♫ ♫ ♫ ♫ (쉬) ♫ ♫ ♫ ♫ ♫ ♫

○ 구속 하시 리 이다 — ◎ 제 영 혼이 주 님을

11. (계-응) 연결시의 장단 : 후창자는 선창자의 끝 음을 1박자로 간주하여 받습니다. (단 선창자는 끝 음을 2박자 끌고 후창자의 시작음과 겹치게 함.)

... ♫ ♫ ♫ ♫ ♫

○ ... 들어 주 소서 —

♪ ♫ ♫ ♫ ♫ ♫ ...

● 제가 비는 소 리를 ...